

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또래지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대처행동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전 희 경

또래지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대처행동

배지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전희경

인 준 서

전희경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교사 및 부모들이 유아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행동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여 아동기 정신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중류층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는 서울에 위치한 A유치원 만 5세 2학급의 유아 67명 중 인기도 검사를 통해 선정된 유아 40명(인기아 20명, 비인기아 20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로는 유아의 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 Agard와 Harrison이 1978년에 제작한 How I Feel Toward Others(HIFTO)를 Asher, Singleton, Tinsely 그리고 Hymel(1979)이 학령 전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Burts, Hart, Charlesworth와 Kirk(1990)가 제작한 CCSBI(Class Child Stress Behavior Instrument)를 이윤경(1992)과 고희정(199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Gutmann(1967)의 세 가지 환경 통제방식을 기초로 Lazarus와 Folkman(1984)이 사용한 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은 또래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스트레스 행동은 인기아 집단보다 비인기아 집단의 유아에게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 스트레스 행동의 하위 행동인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타인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에서도 인기아 집단의 유아보다 비인기아 집단의 유아에게서 유의미하게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 물체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또래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동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우 비인기아가 인기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능동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우 인기아의 경우가 비인기아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유아의 또래지위	7
1) 유아기 또래관계	7
2) 유아기 또래지위 유형	9
3) 유아의 또래지위와 행동특성	11
2. 유아의 스트레스	15
1) 스트레스의 개념	15
2) 유아 스트레스의 요인	17
3. 스트레스 대처	21
1) 스트레스 대처행동	21
2)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유형	22
3)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23
III.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26
2. 연구도구	27
3. 연구절차	32
4. 자료분석	34

IV. 연구결과 및 해석	35
1.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35
2.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행동	38
V. 논의 및 결론	40
1. 논의	40
2. 결론	42
3. 제언	44
참고문헌	45
Abstract	52
부 록	54

표 목 차

<표 1> 대상 유아의 수 및 연령 분포	27
<표 2> CCSBI의 하위유형 및 항목 수	29
<표 3>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각 척도구성	31
<표 4> 또래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차이	35
<표 5> 또래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하위행동 차이	37
<표 6> 또래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3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치열한 갈등과 경쟁뿐 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생활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변화에 대한 적응은 성인 뿐 만이 아니라 청소년, 아동 및 나이 어린 유아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된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아동 및 유아들에게도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상들이 발견되고 있다(장연집, 2001). 아동과 유아들 또한 긴장이 많은 사회적 분위기와 물질만능주의의 영향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부모 곁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오늘날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또래들로부터 거의 날마다 극심한 성숙 압력과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아동과 유아들은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주변 생활환경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확장 및 전이과정과 질적인 변화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안, 고통, 짜증스러움과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 생활환경이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아동은 아직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성인에 비하여 아동은 인지적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뿐 만

아니라 이를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압박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Chandler, 1987). 또한 아동기의 스트레스 축적은 앞으로 이어지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동의 잠재력을 상실하게 하며 어릴수록 스트레스로 인해 상처를 받기 쉬우므로 성인이 보기에는 유아 및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이 갖는 스트레스 역시 성인들이 갖는 스트레스의 높이만큼이나 높고 그 폐해는 평생 동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히 중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태내기의 자궁 속에서부터 받기 시작하여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삶의 한 부분이므로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유아기는 부모와 가족을 벗어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족과는 매우 다른 형태인 동일한 연령과 지위로 구성된 또래집단과 접촉하게 되고 점차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유아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 나이에 맞는 기능과 흥미를 발달시키고 또래와 비슷한 문제와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집단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 나가게 된다(김윤경, 1977). 즉 유아에게 또래들과 적절하게 사귀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과업은 발달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 중 하나이며 유아의 삶과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또래와의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사회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아 통제력의 발달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수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아 및 아동이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술의 발달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송미선, 1995).

그러나 또래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인 양상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루 일과 중 많은 부분을 유치원에서 생활하며 금

정적 또는 부정적인 친구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시기의 부정적인 또래 관계는 유아들이 현재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며,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현할 기회를 점차 감소시켜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기도 한다(Cowen et al, 1982; Roff, Sell & Golden 1972). 유아기의 또래 상호관계나 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러 연구자들은 또래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하는 비인기아 집단 아동들이 친구 관계에서 오는 부적응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Medeiros et al, 1983). 또한 즉 이러한 또래 집단에서 유아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유아의 성장에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기아 집단은 비인기아 집단보다 사회적인 기술이 더 좋고(김윤경, 1977), 배척아들은 인기아와 무시아보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과활동적이고 주의한 산만한 특성을 보인다(이미순, 1995). 또한 인기아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교적이고 우호적이며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동정·수용적, 과시·자기 도취적 성향이 강하며, 배척아는 반항적이고 불신적인 성향이 강하다(김은정, 2001). 또래에게 많이 수용되는 아동일수록 대인문제해결력이 높으며(이병림, 1996) 부정적 친구관계를 갖는 배척아들은 보통아나 인기아보다 친구관계나 외부적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서혜전, 1993). 또한 인기아 집단이 배척아 및 무시아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정현, 2003).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유아보다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권숙희, 1998; 김금숙, 2001; 배정현; 2003; 서영미, 2001; 서혜전, 1993; 신재선, 2001; 안경숙, 1993; 오명희, 1994; 윤덕임, 1999; 임근영, 2002; 진은경, 1994; 천민필, 1993).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집단크기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비교한 연구(이윤경, 1994),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관한 연구(안

라리, 1995),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관한 연구(오경미, 2002)들이 대부분으로 유아의 또래관계나 유아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유아교육기관의 질이나 집단의 크기, 유치원의 운영시간 등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유아의 또래관계나 유아 개개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유아의 또래 간 인기도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김나림, 1995)가 있지만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함께 다룬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Sullivan(1953)은 아동기에 또래집단과 맺는 친밀한 관계가 청소년기 이후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초기 어린 시절 경험한 관계의 결핍까지도 보상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긴밀한 또래관계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외부세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실업, 질병 등으로 가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유사한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친구들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에 따라 적응적 결과가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은(Conrad & Hammen, 1993; Pryor & Cowen, 1989) 또래관계가 제공해주는 정서적 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아동의 또래지위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지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교사 및 부모들이 유아들의 스트레스 행동과 대처행동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

하여 유아기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지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라 스트레스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또래지위(peer status)

또래지위란 또래집단 내에서 한 유아에 대한 또래 유아의 선호 및 수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수용도, 또래 수용도, 인기도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지위는 또래평정법을 실시하여 나타난 인기의 정도에 따라 인기아와 비인기아로 분류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sher et al., 1979).

- (1) 인기아 : 또래평정법을 실시하여, 또래로부터 받은 개인별 인기도 점수가 집단 내에서 상위 30%에 속하는 유아이다.

(2) 비인기아 : 또래평정법을 실시하여, 또래로부터 받은 개인별 인기도 점수가 집단 내에서 하위 30%에 속하는 유아이다.

2) 스트레스 행동

유아에게 내적 또는 외적 요구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지각으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행동 유형을 소극적인 스트레스 행동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행동을 구분하였다.

3).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유아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대처행동, 수동적 대처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능동적 대처행동은 자아기능이 강렬하게 작용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외적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성취와 독립을 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둘째, 수동적 대처행동은 외적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외적 조건과 상황에 순응 또는 타협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여 성취동기와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경향을 나타내는 행동을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의 또래지위

1) 유아기 또래관계

유아는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접촉이 가정을 넘어 또래의 세계로 확대된다. 또래란 나이, 성, 학년의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발달과 행동이 유사한 아동으로서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지는 대상이다. 또래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연령이 같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지 않고, 행동의 복합성이 동일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동격의 존재로서 정의하고 있다(송미선, 1995). 또래는 유아의 성격이나 사회적 행동, 가치관, 태도 형성, 학업 성취에 독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부모나 형제들 간의 비동격적인 관계와는 달리 평등하고 수평적인 동격의 또래관계 특성에 기인한다(Asher, 1999). 또래관계는 유아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점차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또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거보다 오늘날 더욱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 및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성인의 권위에 따라 지시를

받거나 성인 주도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와는 달리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유아는 다른 유아와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 태도와 행동을 수정하게 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 협동하는 것을 배우며 자신을 또래와의 관계 속에 적응시켜 가정에서는 습득하기 어려운 사회적 능력의 발달 및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이경미, 1992; 최순영, 2003). 즉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자신을 타인에게 적응시켜 다른 유아들과 같이 사회적 집단 안에서 놀이를 통한 협동성을 기르고 도덕성을 발달시키도록 돕고(Rubin, 1990), 유아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해주며 서로에게 다양한 사회적 모델을 제공해 주므로 사회적 기술은 물론 대인 관계에 대한 기술도 습득하게 한다(Youniss, 1980).

유아기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유아들은 타인에게 민감하고 친절하며 협조적인 동시에 타인의 목표를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유아의 행동 반응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을 요구한다. 특히 진행중인 놀이에 참여하고 싶을 때에는 또래들의 행동흐름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또래집단에 의한 높은 수용도를 나타냈다(Newcomb, Bukowski & pattee, 1993). 반면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아들은 성인의존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해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번번히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아 개념과 인지적 능력이 낮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이들은 또래집단에 의한 낮은 수용도를 나타냈다(Deluty, 1981).

이처럼 유아의 또래관계는 유아에게 집단 속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보다 넓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질을 길러준다. 특히 또래집단과의 경험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역할, 올바른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고 사회성의 발달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유아의 또래관계는 유아의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등 유아의 발달 과정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유아기 또래지위 유형

유아의 또래지위는 또래집단 내에서 한 유아에 대한 또래 유아들의 선호 및 수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수용도, 또래 수용도, 인기도라는 용어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래지위는 또래집단 내의 구성원에게 또래 지명법, 또래 평정법 등의 사회성 측정검사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김은정, 2003; 조향희, 2002).

사회성 측정법은 1934년 Moreno에 의해 창시된 연구 방법으로 집단을 이룬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나 거부 정도 및 형태를 조사하여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집단의 구조를 발견해 내려는 것으로(이은혜, 1985), 또래 집단 내에서의 한 유아에 대한 동료 유아의 선호성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며, 유아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또래 관계를 이해, 평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또래 관계를 위한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사회성 측정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또래 지명법(peer nomination method)과 또래 평정법(peer rating method)을 들 수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또래 지명법은 유아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유아와 싫어하는 유아를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유아가 얼마나 많은 긍정적 및 부정적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에 의해 아동의 사회적 지위 내지는 인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Moore에 의해 개발된 또래 지명법은 사회적 수용도(긍정적인 지명에서 선택된 수)와 사회적 거부(부정적인 지명에서 선택된 수)에 의해 인기아와 비인기아를 구분하였다(Dodge, 1983). 이러한 또래지명법은 각 아동의 인기도와 배척당하거나 고립된 아동

을 규명해낼 수 있기는 하나, 특정 아동 몇몇만을 지명하기 때문에 집단에서의 아동들의 전반적인 수용정도를 나타내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래지명법의 단점을 수정한 또래 평정법은 한 아동이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 있는 전체 아동들을 어떤 특정한 기준(좋아하는 정도, 같이 놀고 싶은 정도)에 따라서 Likert식의 척도에 의해 평정하는 방법이다. 또래 평정법은 또래 지명법에 비해 한 집단 내의 모든 아동들의 평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긍정적·부정적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또래 지명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있으나, 집단 내 모든 아동을 평정하도록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실시 상의 문제점이 있고 준거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Asher & Hymel, 1981). 또한 또래평정법은 긍정적 인 지명과 부정적인 지명에 동일한 정도의 점수를 받은 아동은 모든 아동들에 의해 중간적인 평가를 받은 아동과 구별되지 않고 고립아와 배척아의 구분이 어렵다(이병림, 1996).

사회성 측정법으로 아동의 지위를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Hartup(1983)과 Dunnington(1975), Moore(1967) 등은 긍정적 선택을 많이 받은 아동을 인기아(stars), 긍정적 선택과 부정적 선택 모두 받지 않은 아동을 고립아(isolates), 그리고 부정적 선택을 많이 받은 아동을 배척아(rejects)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더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는데, Coie, Dodge 및 Coppotelli(1982)는 또래 지명에서 받은 긍정적인 지명수와 부정적인 지명수를 합한 점수를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점수, 긍정적 지명수와 부정적 지명수의 차를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점수로 계산하여 아동의 지위를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배척아, 그리고 인기아와 배척아 두 집단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면아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또래지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각 또래지위 집단별 특징을 알아보려는 국내

연구들의 결과 양면아나 보통아, 무시아와 같은 집단은 잘 나뉘지지 않는다(이미순, 1995; 김성훈, 2000) 그래서 보통 인기아, 비인기아(김나림, 1995; 류형순, 2002; 민신일, 2003; 임근영, 2001; 정문환, 1981) 혹은 인기아, 보통아, 비인기아(김귀자, 2004; 김송이, 2001; 김은정, 2001; 배정현, 2003; 조향희, 2002)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유아의 또래지위와 행동특성

유아의 또래집단 안에서 개별 유아의 행동에 차이가 생기며 이러한 개인차에 따라 유아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형성된다. 즉 유아의 또래집단에서도 모든 다른 사회집단에서와 같이 또래간의 지위 체제가 형성되며, 여기서 다른 유아에게 인기가 있는 인기아와 인기가 없거나 배척을 당하는 유아가 생겨난다(이은혜 · 이숙재, 1980).

유아의 또래지위는 인기도의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유아의 인기도란 또래 집단 내에서 한 유아에 대한 또래 유아들의 선호성의 정도를 의미하며(Hurlock, 1978), 개인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이은혜, 1990). ‘인기가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친구나 동료로써 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인기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친구를 만들기가 힘든 사람이다(Hurlock, 1978). 또래 집단에서의 인기아는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정을 받으므로 안정되고 보다 성숙한 행동을 보이게 되지만,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유아는 부적응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

또래집단 내에서 인기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모의 양육 방식, 출생 순위, 지능, 유아의 이름이나 신체적 특성, 행동특성 등이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

방식에 있어서는 부모가 온정적이고, 민감할 때 유아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성인 및 또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Waters, Wippman & Sroufe, 1979). 둘째, 출생 순위와 관련하여 막내는 자신보다 힘이 센 윗 형제와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맏이보다 인기있는 유아가 되기 쉽다는 연구도 있다(Miller & Maruyama, 1976). 셋째, 지능이 높은 유아는 인기아가 되기 쉽고(Hartup, 1983), 학문적 자아 개념이 높은 유아 역시 인기가 있다(Green, Forehand, Beck & Vosk, 1980 ; Hartup, 1983). 넷째, 매력적인 이름을 가진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또래 관계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David & Harari, 1966). 반면 이상한 이름을 가진 유아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다섯째, 유아의 신체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모가 매력적인 유아는 인기가 있다(Vaughn & Langlois). 그 이유는 부모나 교사 및 또래가 매력적인 유아에게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므로 매력적인 유아는 자신감을 신장시키는 반면, 매력적이지 않은 유아는 긍정적이지 못한 피드백을 받아서 자존심을 상실하게 되고, 무례하며, 공격적인 유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haffer, 1988).

여섯째, 또래지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유아의 행동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인기아는 사교적이고, 협동적이다. 반면 비인기아인 무시된 아동은 수줍음을 타고 회피적이며, 거부된 유아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특성을 보인다(Coie, Dodge & Coppotelli, 1982; Coie & Kupersmidt, 1983; Dodge, 1983; French & Waas, 1985).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사회적 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기가 있는 유아는 또래집단으로부터 긍정적 강화를 많이 받으며, 의사소통 능력이나 지도력이 좋으며 협동적이고 상호작용 전략의 범위도 넓다. 또한 새로운 집단에 들어갈 때도 또래의 활동을 조용히 관찰한 후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 그 집단의 또래와 같은 행동을 취한다(Dodge, 1990). Puttallaz와 Gottman(1981)은 인기아가 또래 집단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관찰해 본 결과 집단 활동이나 대화에 잘 참여한다고 하였다. Hurlock(1956)은 또래집단에서의 인기아들은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므로 적응력도 좋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명랑한 태도와 성숙한 행동 그리고 우호성, 동조성 등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기아는 또래에게 대화나 협동놀이, 웃음, 도와주기와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빈번히 나타냄으로서(송미선, 1995; 허인영, 2001) 또래들에게 호감을 얻고 수용이 되며 비인기아에 비해 문제 상황에서 친사회적 반응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윤희, 2002). 또한 인기아들은 보다 직접적이고 우호적이고 낮은 상황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노력을 보이며(Coie et al, 1990),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에 반응하며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고(류형순, 2002; 조향희, 2002), 또래와의 갈등을 이유 설명하기와 또래의 의견을 경청하는 행동을 통해 해결한다(김송이, 2001).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인기아는 비인기아에 비해 또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고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으며,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협동, 자기주장, 공감, 자기 조절 등 사회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며(김윤경, 1998) 사교-우호적,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하다(김은정, 2001). 또한 또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주고받는 경향이 있었다(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반면 배척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는 비인기아들의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은 비인기아들은 다른 유아의 활동에 반대하고, 이야기 도중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등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끌려고 한다(Puttallaz & Gottman, 1981). 반사회적 행동, 낮은 학업 성취, 높은 공격성, 과업수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 등의 특성을 보이고(Coie et al, 1982), 부적절한 놀이, 적

대적인 언어, 또래 배척, 또래 구타 등의 행동을 하며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적으며(Dodge, 1983), 다른 아동들에 비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규율에 벗어난 행동을 더 빈번히 한다(Ladd, 1983). 비인기아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 이들은 신체적인 공격성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공격성을 동반하는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과도한 활동성을 보이며 비행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ench & Waas, 1985). 고립 아동이나 배척 아동들은 낮은 상황에서 타인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은 당혹감을 보여 부적응 행동이나 위축 행동, 성인에 대해 반항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며 성인 의존성 등의 행동 및 자기 파괴와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Hurlock, 1956). 특히 배척아들은 언어적 혹은 신체적인 공격 행동을 더욱 빈번하게 보이며, 다른 유아에게 사회적 접촉을 시도할 때 종종 거부되기도 한다. 따라서 배척아들은 다른 유아들과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다른 유아들의 활동을 바라보거나 응시하기, 방관하기 등의 행동을 많이 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비인기아들은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견 고수하기, 무시하기, 주의 돌리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송이, 2001).

이러한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유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받는데, 인기아는 비인기아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신미희, 1989), 인기아들은 비인기아들에 비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비인기아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에 대하여 항상 불만과 거부감이나 갈등이 있고 대인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며 항상 어느 상태에서 소외되어 불행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정문환, 1981).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일반적으로 인기아의 특성은 용모가 매력적이고, 보통의 체격을 가지며, 자아 개념과 인지적 능력의 수준이 높고, 정

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며, 사회 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인기아들은 매력적이지 못한 용모와 특이한 이름을 가진 유아가 많고, 성인 의존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해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며 정서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아 개념과 인지적 능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세기에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고난, 곤경, 역경, 고통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는 물리학의 맥락에서 물체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인 압력, 강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Cary, Copper, Judi & Marshall, 1971). 스트레스는 1956년 Selye가 그의 저서 ‘생활의 스트레스(The Stress of Life)’에서 스트레스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개인의 내적 또는 외적 요구가 자신의 적응 자원보다 지나치다고 판단이 내려질 때 경험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였고, Chandler(1987)는 개인의 채워지지 않은 내적 욕구나 환경적 요구 또는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긴장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아 스트레스에 대하여 Band와 Weisz(1988)은 유아가 느끼는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놀랐거나 겁이 나는 일 등을 유아 스트레스로 정의하기도 하였다(류은옥, 2000 재인용).

Lazarus와 Folkman(1984)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 반응으로

서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관계적 관점의 세 가지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구체화하였다.

첫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외적인 환경조건으로부터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 다양한 환경적인 자극이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으로 Homles와 Rahn(1967)의 연구는 생활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즉 일상생활의 적응과정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생활사건은 각기 스트레스 강도에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각 생활사건에 각기 다른 비중의 점수를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에서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으려는 것으로 이 접근에서는 어떠한 상황들이 표준적으로 스트레스가 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그 사건의 평가에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생물학적 모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고전적 스트레스 개념으로, 캐나다 의사인 Selye의 연구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즉 스트레스를 외적·내적 자극에 대응하는 개인의 신체적 비특유 반응으로 항상성이 붕괴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Selye(1956)는 스트레스를 적응을 요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적응자원이 모두 소실되면 심리적 또는 신체·생리적으로 불편한 측면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장연집 외, 1999 재인용). 반응수준이 경미한 단계에서는 아동이 감기나 소화불량 등을 나타내지만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입원이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은 스트레스를 반응으로만 알 수 있으므로 무엇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외부 사건에 대해 반응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며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동반되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관계적 관점에 의하면 유아와

주변 생활환경과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수많은 상호작용의 특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정의 내리는 것으로 단일한 사건이나 상황에 따른 아동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ice et al., 1993). 아동의 심리적 특성은 환경의 자극요소가 될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역시 환경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며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로, 이들 간의 관계는 단순한 작용이 아니라 역동적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이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이 있더라도 성격, 인지와 지각, 대처 방법 등 개인의 특성이 스트레스 반응을 중재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즉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며 그 정도도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경험적 배경과 성격적 특성 및 상황을 느끼고 판단하는 인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또한 개인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지향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개인이 인지적 평가과정을 통하여 사건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정서적 반응이 달라지므로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스트레스를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과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자극으로 보는 입장, 반응으로 보는 입장,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정의한 입장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개인의 반응이 아닌,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로 보는 세 번째 관점에 입각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유아 스트레스의 요인

스트레스 요인이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과 사건 또는 사람 등의 자극으로서(Selye, 1976)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Medeiros(1983)에 의하면 유아의 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 요인들은 성인들의 생활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들과 비슷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또한 어른들과 유사하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유아들은 아직 발달 단계에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고, 유아들이 직면한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의 대부분이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는 유아가 그 스트레스 자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는 어떤 자극이 어떤 유아에게 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즉 유아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아동들이 특정 상황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Zimiles(1986)는 오늘날의 유아들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과거의 유아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빈번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유아 스트레스 요인은 유아 개인과 관련된 요인, 가족과 관련된 요인, 생태학적 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으며,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급성적인 요인과 만성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 그리고 스트레스 자극의 강도에 따라 중대한 생애 사건과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나누어 보는 견해 등 다양하나 이중 유아 스트레스 요인을 Honig(1986)가 분류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적인 요인에는 유아의 기질, 유전, 지적 능력, 연령, 성별 등 유아 자신의 특성과 부모의 성숙에 대한 기대, 동생의 출생, 부모의 불화, 부모의 취업상태 등의 가정배경을 포함시키고 외적인 요인에는 유아 주위의 생태학적 환경과 학습 환경을 포함시켰다.

스트레스의 내적 요인 중 먼저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질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기질이 까다로운

유아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쉽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기질의 유아가 부모의 비판을 더 많이 받았다(Honig, 1986).

다음으로 부모의 취업 유무, 가정의 경제적 여건, 새로운 동생의 출생, 부모의 이혼이나 상실, 가정 폭력 등의 가족 배경 요인이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안일을 맡기는 경우에 부담을 주게 되며 어머니의 불만족한 역할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문제를 유발하여 유아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되었다. 또한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들은 더 나이든 후에 부과해야 할 기대와 걱정을 전 단계 유아에게 부과함으로써 성장압력을 가하게 되었다(Elkind, 1988). Gold와 Andres(1978)는 어머니가 직장을 가진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이 더 또래 중심적이고 자아 충족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유아가 발달적으로 부적합한 실제의 학습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위협을 받았으며, 새 동생이 태어나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유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Dunn과 Kendrick(1980)은 새 동생의 탄생 후 부모와 큰 아이가 노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이 늘어감으로써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 유아에게 스트레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교사나 부모, 다른 가족으로부터의 긍정적인 관심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유아의 경우에는 두려움, 슬픔, 정서 빈곤, 격렬한 자기비난을 보이며, 단기적 현상으로는 공격성이 증가하고 이를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Arnold & Carnahan, 1990). 아울러 부모상실의 경험은 유아에게 가장 큰 슬픔의 요인이 되지만 생전에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죽

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거나 위안이 되는 생존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의해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Schaffner, 1990). 가정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심각한데, 유아는 부모의 싸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가정폭력을 목격한,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유아는 가장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였다(Johnson & Cohn, 1990).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밀접한 주택가, 이웃의 범죄나 반사회적 역할, 보텔, 지저분한 거리 등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유아기에는 가족 밖의 사회적 관계의 증가로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기도 한다. 또한 유아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체 환경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환경도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아교육기관 종사자 모두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Chandler(1987)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곳으로 교사나 또래에게 개인적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유아에게 심각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한다.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처음으로 가는 날,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이지만, 유아의 발달적 수준에 부적합한 프로그램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유발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은 각각의 요인들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발생하기도 하므로 유아들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은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스트레스 대처

1)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생각해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정문자 · 정현숙, 1994). 이때 같은 양의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각자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느냐하는 것이 대처행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ompas, Malcame & Fondacaro, 1988; Lazarus & Folkman, 1984) 이 제기되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대처행동이란 인간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며(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 대처를 방어 혹은 자아 과정의 관점, 성격특성의 관점, 상황지향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Lazarus & Folkman, 1980).

첫 번째, 방어 혹은 자아 과정으로 대처를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대처행동을 자아 방어적 과정으로 보고, 그 기능은 긴장 완화에 있다고 본다(Hann, 1977). 이 관점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기장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들을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투사적 기법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무의식적 반응 속에 나타난 내적 갈등이나 방어행동 등을 추론한다(MaCrae, 1982).

두 번째, 개인의 성격 또는 기질적 특성으로 대처를 파악하려는 관점에서

의 대처 행동은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응효과이다. 즉 개인의 성격특성이 스트레스의 대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처행동은 직면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고, 안정된 성향을 지닌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긴장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동 양식을 A형과 B형 성격, 억압, 민감화형, 대처회피형 등의 성격 특성으로 나눈다(Lazarus & Folkman, 1984)

세 번째, 상황 지향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취하는 대처과정을 인성특성에 의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성향적 행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적 행동으로 본다. 그래서 상황론자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상황이 아닌 특수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에 관심을 둔다(Lazarus & Cohen, 197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며 자아과정의 관점, 성격특성의 관점, 상황지향적 관점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2)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유형

대처행동의 유형은 대처하는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대처행동의 유형에는 첫째, 긴장과 경험을 일으키는 상태를 소거하거나 조절하는 상황조절적 행동, 긴장 경험의 발생 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그 긴장 경험의 의미를 통제하는 의미통제적 행동, 스트레스가 일어난 뒤 그 정서적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으로 통제하는 방어적 행동으로 분류한다(Pealin & Schooler, 1978).

둘째, 대처행동을 투사법을 통해 환경을 통제해 나가는 자아통제방법으로 보고 능동적 대처행동, 수동적 대처행동, 신비적 대처행동으로 구분한다

(Gutmann, 1967). 능동적 대처행동이란 자아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여 외적 환경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성취와 독립을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수동적 대처행동이란 외적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 자신을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외부 세계에 순응 또는 타협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신비적 대처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신비나 우연에 맡기려는 행동으로 자신의 안전과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적 도구 행동보다는 거부 또는 투사와 같은 퇴행적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대처행동을 문제지향과 정서지향으로 분류한다(Folkman & Lazarus, 1984). 문제지향적 대처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지단을 하게 되면 이는 대처 노력을 하게 하여 사람과 환경을 바꾸게 하거나 정서적 고통을 조정하여 삶과 환경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며 정서지향적 대처는 정서적 고통을 조정하여 삶과 환경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넷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접근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로 구분한다(Ebata & Moos, 1991). 접근적 대처행동은 문제에 대한 사고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시도와 함께 문제 또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루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포함하며 회피적 대처행동은 위협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시도와 상황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행동적 시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행동 유형에 대한 정의는 성인의 대처행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지각 정도 그리고 대처행동 능력 등이 성인과 다른 유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초기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연구자들은 Folkman과 Lazarus 또는 Cohen 과 Roth의 이분법적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등 모든 면에서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처행동의 분류체계를 유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최근 연구들은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Ayers(1991)는 9세에서 12세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문제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대처행동, 둘째, 관심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자극을 이용해 문제 상황에서 이탈하려는 주의 전환적 대처행동, 셋째,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회피적 대처행동, 넷째, 문제해결력, 정서적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으로 분류하였다. Ayers가 분류한 네 가지 유형은 Folkman과 Lazarus(1980)가 분류한 문제중심적 대 정서중심적 대처행동 범주 및 Ebata와 Moos(1991)이 분류한 접근 대 회피적 대처행동 범주에 비해 아동의 대처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더 설명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Ayer, 1996). Kleiwer(1991)은 성인의 대처행동 범주를 아동의 대처행동 범주로 사용할 경우 성인에게 적용적이지 못한 회피행동이 아동에게는 적극적인 대처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Band와 Weisz(1988)는 성인관련 대처행동 범주로는 아동의 대처행동 가운데 40% 정도를 범주화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Ryan-Wenger(1992)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행해진 16번의 유아 스트레스 대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처항목과 요인분석을 통해 아동의 대처행동을 공격적 활동, 행동적 회피, 행동적 기분전환, 인지적 회피, 인지적 방식, 인지적 문제해결, 인지적 체구조화, 감정표현, 인내, 정보

추구, 고립 활동, 자아통제활동, 사회적 지지, 영적 지지, 스트레스 요인 수정의 1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국내에서도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정원주와 윤종희(1997)는 Ryan-Wenger(1992)의 15가지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유형을 근거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의 문항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요인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문제 직면적, 문제 해결적 정보추구, 감정 완화적 분리, 행동적 기분전환, 회피적, 영적 지지, 긍정적 재평가, 감정적 공격, 감정 표현의 9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민하영과 유안진(1998)은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연구한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는 여러 면에서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처행동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Ayers에 의하면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적극적 대처행동, 주의 전환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류층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는 서울에 위치한 A유치원 만 5세 2학급의 유아 40명이다.

연구 대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아 학습의 유아 총 67명(남아 37명, 여아 30명)을 대상으로 1차 또래 간 인기도 검사를 실시한 후 표준 점수(Z 점수)로 환산하였다.

둘째, 1차 또래 간 인기도 검사 실시 후 일주일간의 간격을 두고 2차 또래 간 인기도 검사를 실시하여 표준 점수 (Z 점수)로 환산하였다.

셋째, 1차와 2차 또래 간 인기도 검사에서 각 유아가 받은 표준점수(Z점수)의 평균점수가 상위 30%, 하위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유아 40명(인기아 20명, 비인기아 2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유아는 인기아 집단으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유아들은 비인기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유아는 인기아 20명, 비인기아 20명으로 총 40명이다. 이들

유아의 평균 연령과 수는 표 1 과 같다.

<표 1> 대상 유아의 수 및 연령 분포

구분	수	평균 월령
인기아	20	73.2개월
비인기아	20	72.5개월

연구 대상 유아교육기관은 주 5일 반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다. 연구 대상 학급은 모두 2학급으로서, 각각 34명과 33명의 유아와 담임교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임교사는 각 반 경력 4년, 5년의 학사 학위 소지자였다.

2. 연구도구

1) 인기도 검사

유아의 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Agard와 Harrison이 1978년에 제작한 How I Feel Toward Others(HIFTO)를 Asher, Singleton, Tinsely 그리고 Hymel(1979)이 학령 전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학급 전체의 아동이 각 아동에 대한 선호도를 평정하는 또래 평정 방

법이다. 이 방법은 또래 지명법 보다는 안정성이 있으며, 집단 내 모든 유아들의 인식에 기초한다는 장점이 있다(Hymel & Rubin, 1983).

유아는 미리 준비한 학급 전체 유아의 사진을 보고, 각 유아의 사진을 한 장씩 골라 유아가 가장 좋아하거나 가장 놀고 싶어 하는 친구의 사진이면 웃는 표정이 그려져 있는 얼굴 상자에 넣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친구이면 보통 표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상자에 넣고, 조금도 좋아하지 않거나 놀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이면 찡그린 표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상자에 집어넣도록 하는 방법이다. 인기도 점수는 3점의 평정 척도에 의하여 웃는 표정은 3점, 보통 표정은 2점, 찡그린 표정은 1점을 주어 인기도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표준 점수(Z점수)로 환산한다.

Asher와 그의 동료들(1979)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과 동일한 인기도 검사를 학령 전 아동에게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가 .81을 나타내어 비교적 높은 재검사 상관을 나타내어, 이와 같은 인기도 검사가 어린 아동의 동료 관계 연구에서 신뢰성 있는 지표라고 하였다.

2)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관찰도구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Burts, Hart, Charlesworth와 Kirk(1990)가 제작한 CCSBI(Class Child Stress Behavior Instrument)를 이윤경(1992), 고희정(199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관찰도구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 계수 .92였다.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관찰도구인 CCSBI는 크게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과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으로 구분되며 총 5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 유형 및 항목 수는 표 2 와 같다.

<표 2> CCSBI의 하위유형 및 항목 수

범주	하위행동	항목수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나타내는 스트레스 행동 · 얼굴표정 짓기 · 타인에게 거부 · 방관하기 	12	57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 반복적 제한적 움직임 · 자기 학대 · 학급 주류 이탈 · 생리적 반응 · 나오는 소리 	25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적 행동 · 적대적/공격적 행동 · 부적절한 언어 행동 	15	
	물체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파괴 행동 · 소극적 파괴 행동 	5	

표 2 를 보면 CCSBI는 몽상이나 얼굴 찡그리기, 공허하고 초점없는 표정과 같은 스트레스 행동을 나타내는 소극적인 스트레스 행동과 위에 나타난 항목을 간단히 설명하면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에서 몸으로 나타내는 스트레

스 행동은 움추림, 즐기거나 하품하는 행동, 목적없이 배회하는 행동 등이 있고 **얼굴표정에서 나타내는 스트레스 행동**으로는 초점없는 표정과 불안정하게 쳐다보는 행동 등이 있다, **타인에게 대한 거부 행동**이란 다른 사람이 제시한 과제하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제의를 거부하는 행동이며 **방관하기**란 다른 유아의 활동을 구경하면서 활동으로부터 물러나서 혼자 있는 행동을 말한다.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중 자신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란 손톱 물어뜯기, 손가락 장난하기 등의 행동이고 **반복적 움직임**이란 몸 흔들기나 반복적으로 다리나 팔 흔들기, 손 떨기 등을 말한다. **자기학대 행동**은 자신의 신체를 때리거나 자기 비하적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학급의 주류에서 이탈하는 행동**으로는 도망가기, 숨기 행동 등이 있고, **생리적 반응**으로는 갑작스럽게 소리 지르는 행동(temper tantrums)과 깨우기 등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울거나 이상한 잡음을 내는 행동이 포함된다.

타인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에 속하는 스트레스 행동 중 **의존적인 행동**은 지속적으로 교사의 주의를 끌거나 매달리는 행동이며 **적대적/공격적 행동**이란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위협이나 조롱을 포함하는 행동이다. **부적절한 언어 행동**이란 부적절한 시기에 말을 하거나 강요적인 말, 말 더듬기, 지나치게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행동이다.

물체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에 속하는 스트레스 행동 중 **적극적 파괴 행동**은 장난감이나 동화책, 기구 등을 파괴하는 행동이고 **소극적 파괴 행동**은 물건 빨기, 연필로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 등을 말한다. 이러한 관찰범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3)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Lazarus 와 Folkman(1984)이 사용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나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Gutmann(1967)이 제시한 세 가지 환경 통제방식, 즉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신비적 대처 양식으로 구분하여 측정되며 각 대처양식별 8개씩 총 24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부적합한 문항을 일부 삭제하고 능동적 대처 8개, 수동적 대처 8개, 총 16문항들을 무선적으로 섞어서 제시하고 각 유아가 어떤 대처양식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능동적 대처는 자아기능이 강렬하게 작용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외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성취와 독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수동적 대처는 외적환경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며 외적조건과 상황에 순응 또는 타협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일을 해결하려하여 성취동기와 자율성이 발취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의 각 척도구성은 표 3 과 같다.

<표 3>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각 척도구성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	------	-----	------------------

능동적 대처행동	1, 2, 5, 7, 8, 10, 12, 14	8	.71
수동적 대처행동	3, 4, 6, 9, 11, 13, 15, 16	8	.67

3. 연구절차

1) 관찰자 훈련

유아 스트레스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1명을 연구 보조자로 참여시켜 2회에 걸쳐 훈련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연구 도구에 대해서 연구자가 연구 보조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두 번째 관찰자 훈련에서는 유치원에서 실제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연구 도구를 사용해보도록 하였고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였다. 관찰 결과 전체 문항의 관찰자 간 신뢰도는 Cohen's Kappa계수 .72였다.

2) 예비연구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자와 1명의 연구보조자는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관찰범주, 시간표집단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6년 10월 10일(화) ~ 2006년 10월 11일(수)까지 2일 동안 만 5세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고희정(1998)이 수정·보완한 CCSBI를 이용하여 유아들의 스트레스 행동을 25초 관찰, 5초 기록하는 시간표집법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유아 스트레스 행동 관찰 도구 사용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 항목에 없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한 번에 2

가지 이상의 스트레스 행동이 이어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오래 지속된 스트레스 행동에 대해서만 체크하기로 하였다.

3) 본 연구

(1) 인기도검사 (또래지위검사)

먼저 연구 대상의 표집의 적절성을 위해서 2006년 10월 12일(목) ~ 2006년 10월 13일(금)까지 2일 동안 또래 간 인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래 인기도 검사는 유치원의 자유선택활동시간에 교실의 한 구석에 마련된 곳에서 실시하였으며, 한 유아 당 약 5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관찰

예비연구를 통해 적절성이 확인된 관찰도구를 가지고 인기도 검사 결과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유아 40명(인기아 20명, 비인기아 20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1명의 연구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관찰하였다. 2006년 10월 16일(월) ~ 2006년 12월 8일(금)까지 7주간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및 대처행동을 관찰하였다. 매회 관찰은 CCSBI를 이용하여 관찰 대상 유아들의 스트레스 행동을 25초 관찰, 5초간 기록하는 시간 표집방법을 사용하며 개별 유아 당 총 60회씩 유아의 활동 형태 역시 동시에 기록하였다. 유아의 관찰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3)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

2006년 12월 11일(월) ~ 2006년 12월 15일(금)까지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 질문지를 담임교사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점수는 각 유아마다 스트레스 행동 관찰 도구에 의해 관찰된 스트레스 행동의 빈도를 모두 합산한 것이며 스트레스 대처행동 또한 수동적 대처방식 / 능동적 대처방식의 빈도를 합산한 것이다.

자료의 분석은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대처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지위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및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

유아의 또래지위(인기아, 비인기아)에 따른 스트레스의 하위 변인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와 같다.

<표 4>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 차이

스트레스 행동	인기아(N=20)		비인기아(N=20)		t
	M	SD	M	SD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11.55	6.70	23.85	11.99	4.00***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19.95	5.85	29.30	13.53	2.84**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7.85	3.34	10.75	4.36	2.36*
물체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3.90	1.25	4.70	2.87	1.14
전체 스트레스 행동	43.25	9.96	68.60	16.62	5.85***

* $p < .05$ ** $p < .01$ *** $p < .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인기아가 인기아에 비해 소극적 및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의 경우 비인기아의 평균이 23.85회이며 인기아의 경우 평균 11.5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00$, $p < .001$).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중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의 경우 비인기아가 평균 29.30회로 인기아의 19.95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84$, $p < .01$).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의 경우도 비인기아의 경우 평균 10.75회로 인기아의 7.85회에 비해 빈도수가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6$, $p < .05$). 물체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빈도는 비인가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 스트레스 행동 빈도의 경우 비인기아의 경우 평균 69.60회로 인기아의 평균 43.25회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85$, $p < .001$).

다음에 제시된 표 5는 스트레스 하위 행동별 인기아와 비인기아와의 차이

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5>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하위행동별 차이

스트레스 변인		인기아 (N=20)		비인기아 (N=20)		t
		M	SD	M	SD	
	몸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행동	8.20	6.66	20.85	11.69	4.20***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얼굴표정짓기	1.10	0.85	1.35	0.99	0.86
	타인에 대한 거부 방관	0.50	0.51	0.45	0.51	0.31
		1.75	1.02	1.20	0.77	1.93
	무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8.75	5.01	12.75	9.11	1.72
	반복적, 제한적 움직임	4.70	3.05	9.00	5.90	2.90**
자기자신 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자기학대	2.45	1.88	2.60	1.98	0.25
	학급주류이탈	0.60	0.50	0.45	0.51	0.94
	생리적반응	1.75	0.44	1.90	0.31	1.24
	나오는소리	1.70	1.13	2.60	1.23	2.41*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적대적 공격적행동	3.45	2.28	4.25	3.35	0.88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0.80	0.41	1.00	0.00	2.18*
	부적절한 언어행동	3.60	2.30	5.50	2.74	2.37*
물체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적극적파괴	1.35	0.88	1.80	1.47	1.17
	소극적파괴	2.55	1.61	2.90	2.22	0.57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중 몸으로 나타나는 스트

레스 행동에 있어 비인기아는 평균 20.85회, 인기아는 평균 8.20회로 비인기아가 인기아보다 몹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20, p<.001$). 반면 얼굴 표정 짓기, 타인에 대한 거부, 방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의 하위 변인 중 반복적, 제한적 움직임에 대한 스트레스 빈도는 비인기아의 경우 평균 9.00, 인기아의 경우는 평균 4.70으로 비인기아의 스트레스 행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t=2.90, p<.01$). 또한 깊은 한숨 쉬기 등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비인기아의 경우 평균 2.60으로 인기아의 평균 1.70에 비해 스트레스 행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t=2.41, p<.05$).

또한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 중 의존적 행동과 부적절한 언어 행동에 있어서 비인기아가 인기아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의존적 행동의 경우 비인기아는 평균 1.00, 인기아는 평균 0.80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8, p<.05$). 부적절한 언어행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인기아는 평균 5.50, 인기아는 평균 3.60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7, p<.05$). 그러나 물체에 대한 스트레스 행동에 대해서는 인기아와 비인기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행동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스트레스 대처 변인	인기아(N=20)		비인기아(N=20)		t
	M	SD	M	SD	
수동적 스트레스 대처	2.58	0.56	3.25	0.30	3.84**
능동적 스트레스 대처	3.10	0.71	2.10	0.42	6.16***

** $p < .01$, *** $p < .001$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수동적 스트레스 대처의 경우 비인기가 평균 3.25로 인기아의 평균 2.58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t=3.84, p < .01$). 반면 능동적 스트레스 대처의 경우 인기아의 경우 평균 3.10으로 비인기아의 평균 2.1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6.16, p < .001$).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인기아는 수동적인 대처방식을, 인기아는 능동적인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과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 연구문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은 또래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스트레스 행동은 인기아 집단보다 비인기아 집단의 유아에게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지위에 있어 인기아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김나림(1995), 서혜전(1993), 배정현(2003) 그리고 임근영(2002)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전체 스트레스 행동의 하위 행동인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타인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에서도 인기아 집단의 유아보다 비인기아 집단의 유아에게서 유의미하게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 물체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에서는 몸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행동이 비인기아 집단의 유아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은 반복적/제한된 움직임 행동이 비인기아 집단의 유아에게서 유의하게 더 많이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은 의존적인 행동과 부적절한 언어행동이 비인기아 집단의 유아들에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지위에 따라 유아의 사

회적 행동을 살펴본 결과 신체적 가해 행위, 언어적 공격, 위협, 물체에 대한 손상 등의 반사회적 행동이 인기아보다 비인기아에게 빈번히 나타났다는 송미선(199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비인기아가 인기아보다 또래의 접근 행동에 대해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반응을 빈번히 취한다는 Cioe와 Dodge(199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와 유아의 또래 간 인기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을 살펴 본 김나림(1995)의 연구와 같이 또래지위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은 연구대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크기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비교한 이윤경(1994)과 유아교육 기관의 질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연구한 안라리(1995)의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은 연구 대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유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은 유아교육기관의 질이나 집단의 크기, 활동 형태 등 외부적 요인보다는 유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또래 관계나 유아 개개인의 특성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또래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동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우 비인기아가 인기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능동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우 인기아의 경우가 비인기아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인기아는 수동적인 대처방식을, 인기아는 능동적인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인기아와 고립아 집단 간에 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임근영(2002)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인기아 집단은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많은 집단 활동에 참가하는 개방적인 아동으로 집단 규칙에도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Elkind와

Weiner(197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집단보다 수동적 대처행동 점수가 높다고 한 권숙희(1998), 김금숙(2001), 서영미(2001), 윤덕임(1999)의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며 인기아의 특성으로 비추어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더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오지윤(1999)의 연구 및 비인기아들이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는 신재선(2001), 심희옥(2000), 양진희·최기영(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 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수준은 또래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타인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전체 스트레스 행동이 인기아 집단의 유아들보다 비인기아 집단의 유아들에게서 더 빈번히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비인기아는 주로 수동적인 대처방식을, 인기아는 능동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유아의 스트레스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스트레스 행동을 빈번히 보이는 유아와는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갖고 주의 집중을 해 주는 등 개인적인 관심을 두어 유아가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교사는 일단 유아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유아의 행동에 반응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유아를 대할 때 교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는 유아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유아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단기적 관찰과 대화 외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유아를 관찰하고 적절한 상황에서의 대화를 통해 유아가 직면해있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또래관계는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또래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유아에게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므로 교사는 유아들이 또래집단으로부터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경험을 갖지 않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와 함께 협력함으로써 유아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유아가 스스로 대처 기술을 찾고 시행하도록 격려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나누기와 역할극, 언어활동과 게임, 미술작업 등의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기술행동의 연습이나 피드백, 강화 등을 연결한 코칭 방법과 소집단의 협력활동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또래수용도가 낮은 유아들, 즉 비인기아들이 또래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스트레스 행동과 대처방법만을 살펴보았으므로 어린이집 및 기타 유사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행동과 대처행동을 여러 요인 중에서 또래간의 인기도라는 변인만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관계 이외에도 유치원의 다양한 질적 환경이나 교사 변인, 부모 변인, 그리고 유아 개개인의 특성인 성별, 연령, 출생 순위, 기질 등 복합적인 다양한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및 대처행동을 관찰하는 좀 더 체계적이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간 인기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친구들에 의해 평가된 정보에만 의존하는 또래 평정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또래평정척도만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 교사에 의한 평가 방법이나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또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또래지위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위를 인기아와 비인기아 집단으로만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인기아, 배척아, 보통아, 무시아, 고립아 등 좀 더 세부적으로 유아의 또래지위를 나누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숙희(1998).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의 탐색.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귀자(2004). 유아의 또래지위와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금숙(200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나림(1996). 유아의 또래 간 인기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송이(2001). 또래지위와 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 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숙(2000). 유아의 인기도에 따라 사회가상놀이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전략.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은옥(2000). 교사의 교수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비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형순(2002).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따른 인기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신일(2003). 유아의 또래지위와 사회적 행동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요소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주 · 조희숙(2001).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논집, 10, 161-185,

- 박준희(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재(2002).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화윤·안라리(1996). 유아기 스트레스 행동의 대처를 위한 교사의 역할. 논문집, 31(1), 639-659.
- 배정현(2003).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영미(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대처행동 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혜전(199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 언어적 표출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선(1995). 놀이개입 상황에 있어서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기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미희(1989). 또래관계에서의 인기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성숙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재선(2001).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희옥(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한국 아동학회지, 21(1), 19-33.
- 안경숙(1995). 아동의 스트레스와 행동 문제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라리(1995).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종일제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진희 · 최기영(1996). 아동의 또래 간 인기도와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259-273.
- 오경미(2002).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유치원의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명희(1995).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희 · 엄정애(1997). 유아의 인기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 연구. 배재논집, 2, 189-214.
- 오지윤(1999). 역량에 대한 자가지각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덕임(1999).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성향 및 대처양식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1985). 아동연구방법. 서울 : 교문사.
- 이은혜 · 이숙재(1980). 취학 전 아동의 동료 간 인기도와 아동 특성간의 관계.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보고서, 서울 : 연세대학교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 이희선(1994).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광, 12, 23-40.
- 임근영(2001). 인기아와 고립아의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연집(2001). 아동기의 스트레스. 서울 : 다음세대.
- 정문환(1981). 학교사회의 인기아와 고립아의 성별에 관한 연구 : 사회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원주 · 윤중희(1997).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5(3), 95-106.

- 정해영(2003). 유아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소진(2003).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용태(2004). 문화심리학적 요인에 의한 유아의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1-24.
- 조향희(2002). 유아의 또래지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진은경(1991).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아동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진화숙(2001). 유아의 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유형과 놀이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민필(1994).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석란(2001). 어린이의 또래관계. 서울: 다음세대.
- 최순영(2003). 인간의 사회·성격 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Asher, S. R., & Hymel, S. (1981).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 Sociometric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J. D. Wine, & M. D. Syme(Eds.), *Social Competence*(pp. 125-157). New York: Guilford Press.
- Ayers, T. S. (1991).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4.
-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47-253.

- Chandler, L. A. (1987). *Childhood stress; Teacher's rol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85 369).
- Coie, J. D. (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365-402).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Coie, J. D. & Kupersmidt, J. B.(1983), A behavioral analysis oh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Compas, B. E., Malcame, V. L., & Fondacaro, K. 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r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Conrad, M., & Hammen, C. (1993). Protective and resource factors in high -risk and low-risk children: A comparison of children with unpopular, bipolar medically ill, and normal mother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5*, 593-607.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Dodge, K. A., Coie, J. D., & Brakke, N. P.(1982). Behavior patterns of socially rejected and neglected preadolescents: The roles of social approach &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389-409.
- Elkind, D. (1988).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의 아이들(이현순, 심성경, 원영미 공역). 서울 : 창지사.
- Gold, D., & Andres, D. (1978). Developmental; comparisons

- between 10-year-old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 50(2)*, 306-318.
- Gottman, Gonso, & Ramussen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1300-1316.
- Gutmann, D. L.(1967). Aging among the Highland Maya: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28-35.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103-196). New York : Wiley.
- Honig, A. S. (1986).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Part I). *Young Children, 41(4)*, 50-63.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8*, 30-38.
- Hurlock, E. (1970). *Child development* (6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Jane, G. W.(1990).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 장현갑, 강성균 공역. 서울 : 학지사.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linger Publishing Co.
- MaCrae, R. R. (1982). Ag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ping mechanisms, *Journal of Gerontology, 37*, 454-460.
- Medeiros, D. C., Porter, B. J. & Welch, I. D. (1983). *Children under st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Newcomb, A. F., & Bukowski, W. M. (198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utility of social preference and social impact sociometric classification schemes. *Child Development, 55*, 1434-1447.

- Pea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y and Social Behavior, 19*, 2-21.
- Pryor-Brown, L., & Cowen, E. L. (1989). Stressful life events, suppor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and Child Psychology, 18*, 214-220.
- Selye, H. (1976). *Stress without distress*. Philadelphia; Lipncott.
- Seyle, H. (1984). *The stress of life*. revised edition. New York: McGraw Hall, Inc.
- Shaffer, D. R. (198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3r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Abstract

Children's

Stress Behaviors and Stress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Peer status

Jun, Hee Kyung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ildren's stress behaviors and stress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peer status.

According to this object the research subject was fixed as follows :

1. Do children show different stress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peer status?
2. Do children show different stress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peer statu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40 5-year-olds (20 popular children and 20 unpopular children) enrolled in a kindergarten located in Seoul.

The children's peer status was measured using a rating-scale sociometric measure developed by Asher, Singleton, Tinsely and Hymel (1979). Children's stress behaviors were observed with the checklist of Lee(1992) and Ko(1998) developed from CCSBI(Class Child Stress Behavior Instrument) by Burts, Hart, Charlesworth and Kirk(1990).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were measured by classroom teachers using the checklist of Lazarus & Folkman(1984).

Data were analyzed by SPSS PC program in order to test the differences of stress behaviors and stress coping behaviors by operating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for the two factors separately according to peer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children show different stress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peer status. Popular Children show significantly less stress behaviors than unpopular children in the total stress score and stress sub-domains.

Second, children show different stress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peer status. Popular children use more active coping behaviors than unpopular children and unpopular children use more passive coping behaviors.

부 록

<부록 1>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관찰범주

<부록 2>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관찰도구

<부록 3>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지

<부록 1> 유아 스트레스 행동 관찰 범주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A. 몸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행동

1. 움추림(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으로부터 신체적으로 철수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
2. 즐거나 피로에 대한 불평
3. 목적없이 배회하는 것
4. 책상에 머리를 대고 있거나 의자에 털썩 주저앉기, 드러눕기
5. 의자에 나쁜 자세로 앉기
(교사가 수용할 수 없는 자세일 때만 coding 함)

B. 얼굴표정 짓기

7. 눈살 찌푸리기, 찡그린 얼굴, 뺨루통 해 있기, 불안정하게 쳐다보기
8. 초점 없는 표정으로 응시하기 또는 몽상
9. 먼 곳을 쳐다보며 계속적으로 방을 둘러보기

C. 타인에게 거부하기

10. 교사가 제시한 작업을 거부하거나 포기(지정한 일을 하지 않는 것)
11. 친구(교사, 방문자)의 제의를 친절히 거부

D. 방관하기

12. 방관(다른 유아의 활동을 구경하면서 활동으로부터 물러나서 혼자 있기)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자신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E.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

13. 손 갖고 장난하기(손가락 비틀기, 손가락 잡아당기기, 손가락 죄기, 팔꿈치를 접기 등)
14. 코 후비기
15. 입 장난하기(입술 물어뜯기, 손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거나 물기, 이갈기 등)
16. 머리카락을 갖고 장난하거나 빨기
17. 수유, 자신의 몸 일부분을 가지고 놀기, 자신의 몸을 빨거나 드러 내기
18. 귀 잡아당기기
19. 옷을 가지고 장난하기(옷을 비틀거나 물기 등)
20. 반복적으로 긁기
(벌레에게 물리는 등의 이유가 있으면 coding 안함)
21. 비비기 또는 후비기

F. 반복적/제한적 움직임

22. 몸 흔들기
23. 반복적으로 팔, 다리 흔들기

- 24. 발을 질질 끌며 걷기(반복적으로 발의 움직임 포함)
- 25. 얼굴에 경련 일으키기
- 26. 손 떨기, 손 흔들기

G. 자기학대

- 27. 자신의 몸, 머리 때리기
- 28. 자기 비하로 이름 부르기

H. 학급의 주류에서 이탈하기

- 29. 도망가기, 숨기, 기기
- 30. 이동의 자세로서 털썩 주저앉기, 웅크리기

I. 생리적 반응

- 31.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는 발작 행동
- 32. 옷에 이물질 묻히기
- 33. 계우기(토하는 시늉, 토하는 소리 등)
- 34. 소리치기(눈물이 나올 정도)
- 35. 아프다고 하소연하기

J.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

- 36. 이상한 잡음을 내거나 깊은 한숨쉬기
- 37. 특별한 이유없이 울기

타인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K. 적대적/공격적 행동

- 38. 성인에게 건방진 말이나 말대꾸
- 39. 언어적 적대 행동 또는 언어적 방해
- 40. 친구를 위협하는 말
- 41. 신체적인 적대 행위
- 42. 논쟁
- 43. 다른 어린이를 습격하기 위해 친구 꼬시기
- 44. 친구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기

L. 의존적인 행동

- 45. 활동 중에 다른 친구가 하는 것을 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몸을 뺏기
- 46. 교사의 주의 끌기

M. 부적절한 언어 행동

- 47. 교사가 기대하는 말 거부하기
- 48. 신경질적인 웃음
- 49. 말 빨리하기
- 50. 강요적인 말
- 51. 말더듬기
- 52. 지나치게 큰소리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

물체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N. 적극적 파괴 행동

- 53. 놀잇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
- 54. 가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

O. 소극적 파괴 행동

- 55. 종이에 낙서하기
- 56. 연필로 두드리기
- 57. 물건 빨기, 씹기

<부록 3>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검사지(교사용)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뜻을 굽히고 상대방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5	4	3	2	1
2.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	5	4	3	2	1
3.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되살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5	4	3	2	1
4. 자신보다 더 곤란한 처지에 빠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위안을 얻는다.	5	4	3	2	1
5.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	5	4	3	2	1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처방안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5	4	3	2	1
7. 문제를 모두 유아 본인의 탓으로 돌린다.	5	4	3	2	1
8. 누군가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5	4	3	2	1
9. 어려운 일을 당한 지금보다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5	4	3	2	1
10. 그저 앉아서 고민만 했지 해결하려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5	4	3	2	1
11. 융통성 있게 해결하려고 이모저모 노력한다.	5	4	3	2	1

12.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3.직접적으로 그 일에 적합한 행동을 취한다.	5	4	3	2	1
14.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조용히 기다린다.	5	4	3	2	1
15.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생각하곤 한다.	5	4	3	2	1
16.처한 환경에 새롭게 변화·적응하려고 한다.	5	4	3	2	1